

리나와 숲속에 이는 바람에 흩어지는데, 그 소리가 때로는 멀리 달아나기도, 또 때로는 한꺼번에 가까이 몰려들어 어느 대성당에서 울려오는 종소리처럼 귀가 멍멍해지기도 하지. 물이 움직임에 따라 끊임없이 새것으로 바뀌는 공기 덕분에, 여름의 후끈한 열기에도 불구하고, 이 섬의 산 최정상이라 해도 찾아보기 힘든 녹음과 상쾌함이 이 강변에 서는 잘 유지되고 있다네.

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면 바위 하나가 있는데, 물 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하지 않을 만큼 폭포에서는 꽤 멀리 있지만, 그곳의 경치나 상쾌함, 그리고 도란도란 흐르는 물소리가 즐기기 딱 좋을 만큼 충분히 가까운 곳이지. 우리는, 그러니까 라 투르 부인과 마르그리트, 비르지니와 폴, 그리고 나까지 해서 가끔 극심한 무더위를 피해 그 바위 그늘로 밥을 먹으러 가곤 했어. 비르지니는 가장 평범한 행실에 있어서도 늘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쪽으로 다잡아 왔기에, 그 땅에 씨앗이나 종자를 심기 전까지는 들판에서 과일 하나 따먹지 않았다네. 그 아이는 “저기서 나무들이 자라나 어느 여행자에게, 아니면 적어도 한 마리 새에게라도 과일을 선사해줄 수 있을 거예요”라고 말하곤 했어. 그러던 어느 날 비르지니는 이 바위 기슭에서 파파야를 하나 따 먹고, 그 과일의 씨앗을 심었다네.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자리에서 파파야 나무 몇 그루가 자라났는데, 그중에는 암 나무, 즉 열매를 맺는 나무가 한 그루 있었지. 이 나무는